

# 축·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

'22년 1월 1일부터 축·수산물 항균제 기준이 강화됩니다!

▶ 우리나라의 축·수산물 항균제 사용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,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대해서는 외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.

▶ '22년 1월 1일부터는 축·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(0.01 mg/kg)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.

'22.1.1 이전

0.03  
mg/kg 이하



'22.1.1 이후

0.01  
mg/kg 이하

축수산물 항균제 기준 강화로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지킵니다!

▶ 수입 축·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우리 축·수산물은 안전하게 생산·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

